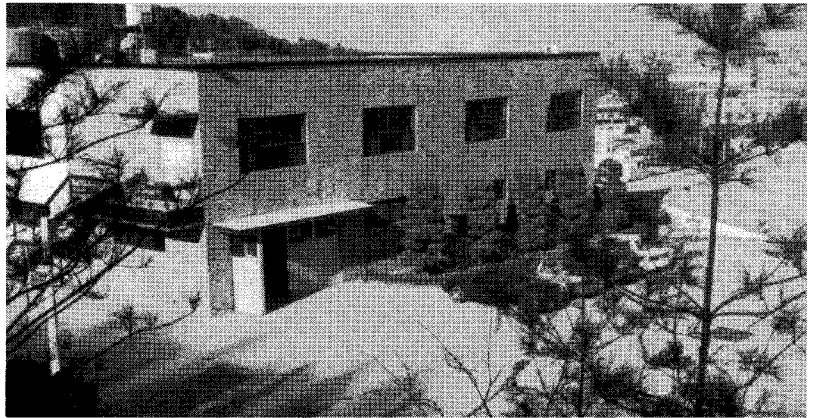


국내생산 어려운 수입제품 · 재활용 가능제품 개발 주력

경영자 · 연구원 연구개발 의지로 최근 다양한 제품 선보여



▲ 94년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남미인더스트리 중앙연구소

94년 정식으로 인가

‘기업의 최대목표는 이윤추구다’라는 정의는 자연스럽게 내려진 정의일 것이다. 경영자들은 이윤추구를 위해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하고 이로 인해 종업원들과의 마찰도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도 발생한다.

1972년 창립이래 단 한번도 노사분규가 없었고 경영자와 종업원들의 자부심이 회사를 계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있는 남미인더스트리는 그간 줄곧 스티커 라벨업계의 선구자적 위치를 확고히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김용조 회장은 72년 남미공사를 창립하여 남미산업공사, 남미산업(주), 남미인더스트리로 발전하기까

지 23년동안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미래를 창조한다는 신경영 이념과 고객지향, 미래도전, 입체사고라는 남미인의 정신을 재정립함으로써 초일류 우량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는 것을 경영방침으로 삼고 있다.

경기도 김포군 풍무리에 170여명의 종업원들이 내실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남미는 연 매출이 약 200억원이며 주 생산품목은 인쇄용 점착테이프, 점착제, 전산라벨이다.

개발제품의 근본지인 중앙연구소는 세계화, 개방화에 따른 자체 기술력강화와 품질향상을 위해 1991년 설립하게 되었으며 부설QC(QAULTY



▲(주)남미인더스트리 김용조 회장

CONTROL)본부와 함께 최고의 제품으로 세계시장과 미래무대를 선도해가기 위한 주축이 되고 있다.

그후 94년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현재 10여명의 연구원들이 고분자 합성연구분야, 응용연구분야, 환경공해 대응 분야에 몰두하고 있다.

더욱이 92년 병역특례업체로 선정되고 연구기자재 확충으로 더욱 내실을 갖추게 된 중앙연구소는 고분자 화학분야를 중심으로 환경공해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각종 제품개발, 수입대체 효과를 기할 수 있는 공업용, 산업용 제품개발과 일반지를 개발함으로써 다양화된 고객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역점을 두고있다.

NY지 · K특강 개발

최근 가치있는 개발품을 다량으로 선보이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남미는 지난해 일본에서 수입되어 오던 유포지를 국내 최초로 국내실정에 맞게 개발, 완료하였으며 이것은 NY지라는 품명으로 현재 제일제당 등에서 적극 사용을 검토중에 있다. NY지란 PP계 합성지며 폴리프로필렌 수지를 주원료로 그에 무기충전제를 첨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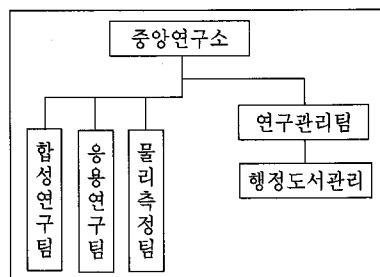
여 마이크보드(공극)를 발생시켜 제막되어진 필름이다. 또한 제품의 두께와는 관계없이 이축연신된 필름성형 방법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모든 NY지는 3층구조 즉 기층과 양지상층의 3중으로 되어있고 인쇄적성이 우수하게 특수코팅되어 완성되어 진다.

NY지 특성은 물과 약품에 강하고 천연지에 비해 매우 질기며 내열성 및 인쇄적성, 특히 UV잉크 인쇄적성이 뛰어나다. 이 제품은 남미가 개발하기 전까지 전량을 미국에서 수입해 왔는데 이 개발로 연간 1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제 국내뿐 아닌 일본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인쇄적성이 뛰어난 남미제품을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작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하여 출고된 양이 지난해만 약 64만㎡이니 만큼 앞으로의 시장가능성은 밝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PE, PP 등 재질이 기존의 아크릴계 점착제와 친화력이 떨어져 스티커 라벨 부착의 피부착물과의 들뜸현상이 발생되어 왔는데 연구소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12개월동안 연구한 결과 PE, PP재질의 친화력이 매우 높은 점착제를 자체 공중합하여 개발에 성공했다.

'K특강'이란 제품명을 가진 이 제품은 점착력을 강화하여 운반도중 불량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며 기존 점착

(표 1) 연구소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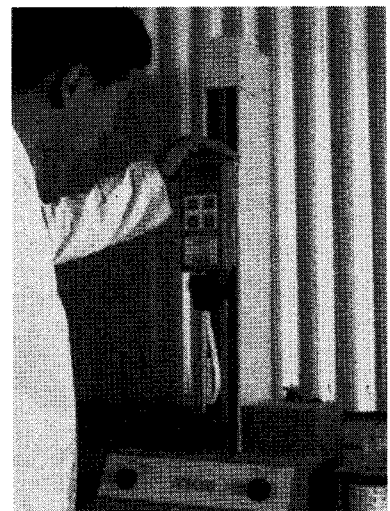


제와 가격은 같으나 품질이 우수하고 다양한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어 작년에만 약 10억의 매출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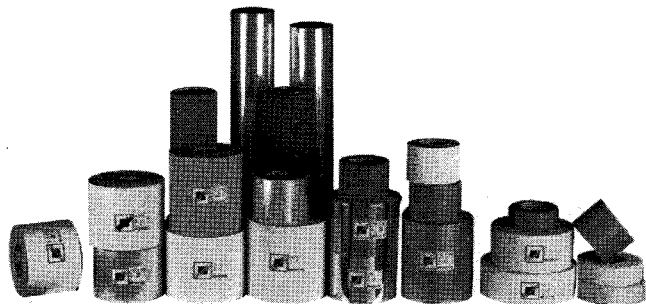
환경관련 제품개발에도 박차

최근에는 환경친화적인 면을 고려하여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포장용 OPP테이프의 대체용으로 K/P지에 프라이머 코팅을 하여 실리콘 코팅을 한후 점착처리한 제품을 개발, OPP테이프의 단점인 해리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PE용기에 PE라벨을 부착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PE용기에 부착하지 않고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특수 프라이머 코팅 처리하여 재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 완료해 놓은 상태다.

다만 아직 양산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라미네이션하고 코팅한 것보다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규제가 강화되어 양산체제가 필요하게 되면 가격도 저렴해 질 수 있지만 아직 규제가 불



▲ 강도를 측정하고 있는 연구원



▲ 창립이래 스티커 라벨업계의 선두주자로서 자리를 지켜온 남미의 제품들

확실한 단계로 기업이 적극 사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개발품외에 NO/PE(NONE POLYETHYLENE)방습지, 화이버 글라스 테이프, 레펠리콘 등이 남미의 주생산품인데 95년도부터 'KOSTIC'이라는 라벨인쇄를 위한 인쇄용 점착지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또한 FORMTEC은 FORM과 TECHNOLOGY의 약자로 컴퓨터 프로그램과 다양한 규격 활용도를 가진 신개념 전산라벨인 FORMTEC LABAL 고해상도 컬러출력을 위한 컬러 잉크젯프린터 전용지인 FORMTEC PAPER도 남미가 앞으로 주력하게될 생산품중 하나다.

이 컬러프린터용 전용지는 지난해 김포상공회의소에서 합동으로 동남아지역을 시찰할 때 선보이고 크게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또한 이 제품은 한국에서 한솔제지와 한국제지가 이미 생산하고 있으나 삼성전자 등 유저업체들이 여러 시험을 거친 결과 남미제품이 우수하다는 평을 얻었으며 올해

남미가 선보이게 될 또하나의 개발품인 설계도면용 필름은 지금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던 제품이라 더욱 가치가 있다.

10여명으로 구성된 중앙연구소는 중소기업연구소답지 않은 시설과 연구의지를 가지고 있어 더욱 기대해볼 만하며 무엇보다도 경영자의 연구개발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긍정적인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매출액 대비 0.7% 연구에 투자

23년간 업계를 지켜온 김용조 회장이 밝힌 품질경영, 경영전략, 전문가 인력의 교육 및 육성, 팀제의 정착 등 올해 경영방침을 바탕으로 중앙연구소는 현재 국내에서 생산이 어려운 수입제품 개발 및 자원재활용이 가능한 제품개발 및 프로젝트 관리, 기술사영의 관리와 과학적인 방법적용, 인쇄업체에 신제품 정보제공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기술면에서 인정받은 남미는 미국, 일본, 동남아 등 13개국으로 매출액 대비 20%정도를 수출하고 있으며 얼마전부터 화학시험검사원과 ISO인증획득

준비작업을 하고 있어 내년 중 결실을 맺을 것이다. 이외 Q마크와 UL마크를 이미 획득한 남미는 국제 경쟁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인증마크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한참 출고중인 남미의 정문에 들어섰을때, 한적한 느낌 때문인지 공장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공장이라는 느낌보다는 한 가정같은 분위기인 공장내를 따라 산허리까지 올라 가다보니 식당과 그 뒤로 연구소가 자리잡고 있었다. 남미의 식당은 이미 업계에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데 서교호텔 외식사업부가 직접 출장나와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정도로 경영자의 종업원에 대한 배려가 세심하다는 평을 들어 지난해 경기도지사로부터 으뜸일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각각의 기업이 특색을 갖고 있지만 남미에게서 느껴지는 느낌은 사뭇 다르다. 매출액 대비 0.7%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어 대기업과 비교한다면 투자면에서는 떨어지지만 경영자들의 연구개발의지와 구성원들의 뉘받침이 동종 업계 최고의 자리를 지키게 할 것으로 믿는다. [K]

이선하 기자

주요실험기기 보유현황

- 향온함습기
- Pilot 생산기
- 만능재료시험기
- 함수율측정기
- 전자현미경
- Pilot 고분자 합성기
- 자동 Label 이탈 시험기
- UV 잉크 건조기
- Ball Tack 시험기
- PH Meter

인터뷰 - (주)남미인더스트리 문한원 연구소장

10여년간 기술개발 주력, 품질향상시킨 주역

환경관련한 제품개발에 전심전력

기술과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요즘 87년 남미인더스트리에 입사하여 지금의 남미가 제품에서 최고의 위치에 다다를 수 있도록 이끌어온 장본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문한원 연구소장은 부산 동래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엔지니어 출신이다. 국내 제일의 목재회사였던 동명목재에서 기술담당이사를 역임하고 남미와 인연을 맺게 된 그는 목재와 종이와 많은 관련이 있고 기술면에서도 서로 상통하는 점이 많아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한다. 동명목재 재직시절 새마을본부장을 맡을 정도로 적극적인 성격인 그는 그 당시 약 2만여명의 직원을 인솔하는 것과 지금 170명을 관리하는데는 각기 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 놓았다.



▲ 문한원 연구소장

“제가 이곳에 온지도 어언 10여년이 되었군요. 그 당시 남미는 스티커 라벨업계에서 두번째 규모를 자랑했지만 화공을 전공한 전문기술인이 없었는데 제가 이곳으로 들어와서부터는 기술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품질위주, 새로운 제품 개선·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91년 QC실 겸 중앙연구소를 만들고 건물을 새로 증축하여 94년 정식으로 부설연구소로 인가를 받았습니다”라고 그간의 상황을 밝히며 역사도 짧은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이지만 그간 해온 성과와 내실면에서는 대기업연구소 못지 않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항상 기술의 경쟁상대를 국내뿐 아닌 선진외국에 두고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술을 좋아하여 자주 자리를 갖는 편이지만 한번도 일에 지장을 준 일이 없다는 문 소장은 연구소 직원들과도 가끔 자리를 갖으며 어려움을 수렴하고 있다.

일을 한다는 것 자체에 동기부여를 두고 부족한 부문은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며 일을 잘 했을때 그에 응당하는 댓가를, 그르쳤을때는 무서운 질타를 가해 때로는 직원들을 관리하는데 냉철하다는 평을 듣기도 한다. 그러나 자기개발을 위해 외부교육 기회도 많이 마련하고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을 그는 늘 강조한다. 매년 자기개인의 사업계획을 정해 놓고 그것을 이루기위해 노력한다는 문 소장은 지난해에도 신제품 개발, 공정관리, 원부자재 수입검사, 표준작업, 제품개선 등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겼다.

“연구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시간을 아까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꾸준한 노력만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이라는 것이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고 많은 투자를 요구하면서도 남들에게 비취질때 쉬운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라고 마지막으로 피력하는 문소장은 ‘남미의 경우도 이미 3년전부터 세계적 추세에 따라 환경관련한 연구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모든 기업이 동참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리자라하여 개발일선에서 물러서 있기 보다는 자신이 주축이 되어 직원들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그에게는 ‘적극적인 관리자’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할 듯 싶다. 기술을 생명으로 줄곧 기술향상, 최고의 제품생산을 위해 기자가 방문한 날도 연구원들과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 풀리지 않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관리자라하여 탁상행정만을 고집하며 나태해지기 만하는 일부 관리자들에게 분명 자극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 [Ko]

이선하 기자